



Hello! I am **Sister Mary Elizabeth Lawrence**. I grew up in El Paso Texas on a farm with sheep and cows, and we grew cotton and pecans. In 1976 I met the Sisters of Charity at Our Lady of Perpetual Help School, in Scottsdale, AZ when I needed a part time job as I was getting my master's degree in Community Recreation and Education. I interviewed with our Sr. Miriam Ellen Chalmers, principal, for a Physical Education position. I wasn't really interested in teaching since I came from a long line of teachers in my family. But here was a job! At the first school Mass, I observed four 7th grade students leading the music with a student playing the flute. After Mass I went to the office and told Sr. Miriam Ellen that I played the guitar and knew liturgical music. That led me to teaching all the music for the school Masses and the 6th, 7th, and 8th grade classroom music.

I finished my degree at Arizona State University and entered the community in 1979. During formation I worked at Seton Hill University in Campus Ministry and Student Life. I returned to Arizona to teach Music and Physical Education at St. John the Evangelist in Tucson. From there I studied Liturgy and ministered as a Liturgist at St. John's and Sacred Heart Churches in Tucson. In 2000 I moved to the Diocese of Phoenix and served as a Pastoral Associate.



Presently I am the Coordinator of Mission Outreach at OLPH. I work with all the volunteer groups that go out to the larger community: Ministers of Care, St. Vincent de Paul, Duet (seniors helping seniors), "Hands of Hope" bags for the homeless, working with a cooperative of Mexican farmers to sell *Café Justo* to enable farmers to get a just wage for their coffee.



I am very interested in the environment and care of the earth. I worked with an energy resource company and learned how to do energy audits that lead me to Korea to work with the Korean province's ecological committee to help the sisters become more energy efficient. I also did energy audits of all the US province houses. My fun hobbies are tap dancing and playing in a steel drum band.



One of my goals is to help groups and individuals understand the connection between one's lifestyle choices and the degradation of the planet. My Earth Sabbatical experience deepened my own call of hope and healing for all creation. We as Sisters of Charity seek a simplicity of life and commit ourselves to the responsible use of consumable resources. "Ask the animals, and they will teach you; the birds of the air, and they will tell you; ask the plants of the earth, and they will teach you; and the fish of the sea will declare to you... In God's hand is the life of every living thing and the breath of every human being."

Job 12:7-8, 10.





안녕하세요! 메리 엘리스벳 로렌스 수녀입니다. 저는 엘파소 텍사스에서 자랐어요. 저희 농장에는 양과 소가 있었고 목화와 피칸을 재배했지요. 1976년 아리조나 주 스코트데일의 영원한 도움의 성모 학교(Our Lady of Perpetual Help School)에서 우리 수녀님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회체육과 교육학 석사과정 중이었고 시간제 아르바이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체육교사로 일하려고 미리암 엘렌 차머스(Sr. Miriam Ellen Chalmers) 교장 수녀님에게 면접을 보았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선생님이 많아서 사실 저는 사실 가르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은 없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드리는 첫 미사 때 플루트를 연주하는 한 학생과 함께 7학년 학생 네 명이 연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미사가 끝난 후 저는 미리암 엘렌 수녀님께 갔지요. 그리고 제가 기타도 연주할 수 있고 전례음악도 안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학교 미사를 위한 전례음악과 6,7,8학년의 음악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석사과정을 마치고 1979년에 입회했습니다. 양성기 동안 씨튼 힐 대학의 학생 생활부에서 일을 했고 아리조나로 돌아와서 투산의 세인트 존 에반젤리스트 학교(St. John the Evangelist)에서 음악과 체육교육을 가르쳤어요. 그곳에서 전례를 공부했고 투산의 세인트 존 성당과 세크레드 하트 성당(St. John's and Sacred Heart Churches)에서 전례담당자로서 사도직을 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에는 피닉스 교구로 옮겨 사목 지원 사도직(Pastoral Associate)을 맡았고요. 현재 저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 본당에서 선교지원 코디네이터로서 여러 자원봉사 단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Ministers of Care(방문 돌봄 단체), St. Vincent de Paul(빈첸시오 회), Duet(노인들이 다른 노인들을 돕는 단체), "Hands of Hope" bags(노숙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Café Justo(멕시코 농부들과 협력하여 Café Justo라는 커피를 판매하여 농부들이 수익을 돕는 프로그램)등과 함께 하지요.



그리고 저는 환경과 지구 보호에 많은 관심이 많습니다. 에너지 자원 회사에서 일하며 에너지 감사에 대해 배웠어요. 이 에너지 감사를 계기로 한국 관구의 생태 위원회와 함께 수녀님들의 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돕기 위해 한국을 방문 했었습니다. 미국 관구에서도 모든 분원의 에너지 감사를 실시했지요. 그리고 저는 취미로 탭 댄스와 스틸 드럼을 연주합니다.



저의 목표는 우리가 선택하는 생활방식이 지구의 환경악화와 관계가 있음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구의 안식일(My Earth Sabbath)이라는 체험을 통해 모든 창조물에 대한 희망과 치유에 대한 저의 소명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랑의 수녀로서 우리는 소박한 삶을 추구하고 소비자원을 책임 있게 사용 해야 합니다.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자네를 가르칠 걸세. 하늘의 새들에게 물어보게나. 그것들이 자네에게 알려 줄 걸세. 땅에다 대고 말해보게. 그것이 자네를 가르치고 바다의 물고기들도 자네에게 이야기해 줄 걸세. 그분의 손에 모든 생물의 목숨과 모든 육체의 숨결이 달려 있음." (욥기 12:7-8, 10)

